

# '인삼 온실 재배 관심 커' 토양 소독 방법 개발

### 농진청, 훈증제로 소독한 뒤 벚짚 넣어주면 토양 환경 복원에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온실에서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 소독과 유기물 투입 실험을 진행했다고, 토양 환경을 일맞게 복원하는 소독 방법을 제시했다.

인삼을 온실에서 재배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 천장이 높아 농작업이 편리하다. 다만, 인삼은 한 번 재배한 곳에서 다시 재배하면 뿌리썩음병 발생이 늘 수 있어 연속해서 재배하려면 땅을 소독해야 한다.

먼저 땅 소독에는 병원균을 99% 죽이는 효과가 있는 훈증제(다조맷)를 이용한다. 훈증 가스(MTC) 발생 효과를 높이면 땅 표면 온도가 15도(°C) 이상 오르는 5월 중순께, 토양 수분이 20% 내외일 때 작업하는 것이 좋다.

훈증제 양은 10아르(a)당 40~60kg 이 알맞다. 이랑을 50cm 간격, 30cm



농촌진흥청은 온실에서도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 소독과 유기물 투입 실험을 진행하고, 토양 환경을 일맞게 복원하는 소독 방법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삼 온실 재배를 위한 훈증제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 깊이로 만든 뒤 속흙(심토층)에 반을 뿌리고, 다시 이랑을 만든 뒤 속흙(심토층)에 나머지 반을 뿌려준 다음 땅을 평평하게 골라준다.

이어 폴리에틸렌(PE) 투명 비닐을 4주 동안 씌웠다가 걷은 후, 밭을 2~3회 갈아 남은 가스를 제거한다. 비닐

은 두꺼울수록 종자만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두께 0.07mm, 폭 8m, 길이 50m 내외의 자외선 코팅을 하지 않은 폴리에틸렌(PE) 필름을 쓰는 것도 좋다.

가스 소독 뒤에는 토양이화학적 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아르(a)당 유기물을

벚짚 45톤, 가축분퇴비 1톤(계분 60% 기준) 정도 넣어준다. 농촌진흥청이 3년근까지 실험한 결과, 유기물을 넣어주면 질산태질소 함량이 4분의 1로 줄어 인삼이 더 잘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훈증제 사용 후 유기물 투입에 따른 토양 환경 개선 효과를 밝혀 온실에서도 실패 없이 소독하는 방법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일반 밭에서는 훈증하고 난 뒤 쫓겨온 자갈을 재배해 토양 환경을 복원하는 데 총 2년이 걸린다. 이 기간 이 온실에서는 1년으로 짧아져 이듬해 봄 바로 인삼을 심을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온실에서 인삼을 연속해서 재배하려면 토양 소독 기술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소독 조건을 맞추고 토양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이 미흡했다"며 "이번 기술의 현장 적용 연구를 확대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가공식품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7일 익산 왕궁에 위치한 (주)미담 대리점에서 퍼스트 대리점 1호 출범식을 개최했다.

## 하림 '퍼스트 대리점' 출범식

### 가공식품 대리점과 상생 강조... 1호점 선정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가공식품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7일 익산 왕궁에 위치한 (주)미담 대리점서 퍼스트 대리점 1호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공식품 퍼스트 대리점은 하림 가공식품 사업과 퍼스트 파트너가 되어 유통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하는 대리점으로, 총 600여 개의 대리점 중 하림 제품 취급율과 매출이 가장 높은 미담 대리점이 퍼스트대리점으로 선정되었다.

퍼스트 대리점으로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감려금 △냉동고 50% 지원 △순환촉진사업 지원 △제품 카탈로그 제작 △유니폼 제공 △차량 도색 △명찰·명함 제작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하림은 첫 퍼스트 대리점을 선정

한 만큼 상반기에는 1호점 안정화에 힘을 예정하며, 하반기에는 경남·경상지역에 2~3호점을 선정하고 2025년 이후로는 지방 주요 도시 거점을 확대해 전국에 총 11개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은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미담과 함께 더 많은 협력과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협업체계를 유지 발전시켜며 오늘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장계농협, 여성리더인 대의원 부녀회장 협동조합 이념 교육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7일 농협조직의 여성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중인 대의원 및 부녀회장, 여성조직장 등 130여명을 모시고 협동조합 이념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반응을 얻었다.

이날, 이념교육 강의를 맡은 이해성 농협 청년교육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고, 장계농협 여성리더로서의 갖춰야 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전달했다.

이해성 교수는 "장계농협 구성체에 여성조합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인상적이다"며 "협동조합의 이용자로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점용 조합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성리더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업인인 조합원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 농어촌공 전북, 2024년 농지은행 예산 2246억원 투입

### 전북 농업인에 농지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24년 농지은행사업에 작년보다 455억원(20.3%) 증가한 2,246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농지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세부 성장단계(진입-성장-전업-은퇴)별로 청년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입차임대, 공공임대)을 한다.

또한 부채봉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을 지원해서 매년 농업인의 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작년보다 455억원(20.3%) 증가한 2,246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농지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전경.

업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진입, 성장단계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300억원,

△농지매매사업 191억원, △입차임대사업 145억원, △과원규모화 38억원, △선입대후매도 25억원 등이다.

전업, 은퇴단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영회생사업 306억, △농지연금 141억원,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은행은 모든 세대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공급,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북농협,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봉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7~8일 이틀간 백운농협 성수지점에서 농촌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영농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수리 봉사에는 전북농협 NH농기계순회정비단(회장 허재용), 농협호남지체유동센터 및 농기계 생산업체(TYM, 대동공업(주), IS엘트론, (주)아세이텍, (유)삼정기계) 정비요원 등 40여명이다.

이들은 합동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해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200여대를 점검·수리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수리 및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순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수리는 물론 농작업 대행 등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족한 이 없도록 농업인 지원 사업을 더욱



전북농협은 7~8일 이틀간 백운농협 성수지점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에 나갔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 900명 디지털·노후생활 교육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수급자(이사장 김신열)와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30개 사회복합서비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이카데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수급자 이카데미'는 노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과 노후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학기제로 운영하며, 국민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기관당 3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연금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복지관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 등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의 '채소식' 게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카데미는 △디지털 △노후생활 △현장 체험 세 가지 교육 주제로 운영된다.

먼저 디지털 교육은 키오스크, 교통과 숙박 앱, 대형마트 무인계산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내용으로 한다.

노후생활 교육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상속·증여세 절세 강좌, 건강댄스, 제빵, 인문학 강좌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체험은 디지털 교육과 노후생활 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대외 참가,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수급자 이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연금수급자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